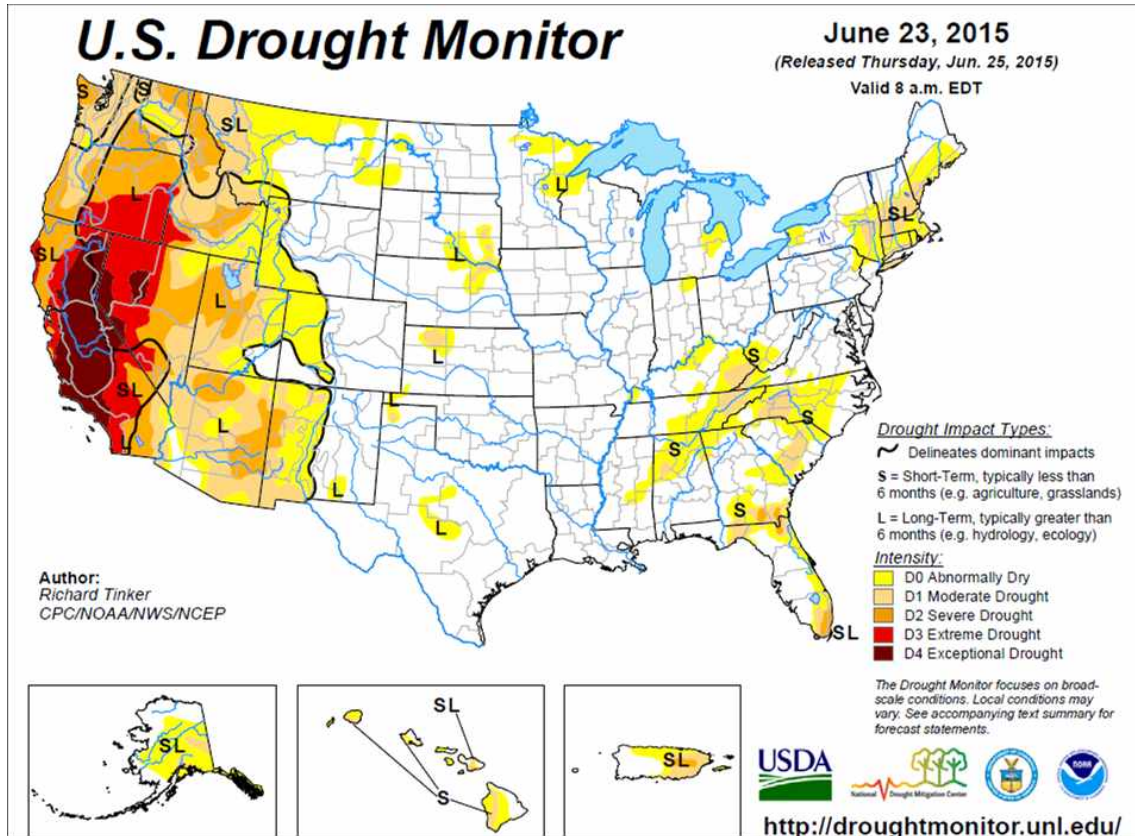


6월 3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26)

□ 미국 기후 현황(6/21~6/28)



남부 일부 지역과 동부 옥수수 지대에 강한 소나기가 내려 수확작업이 지연되었고, 옥수수와 대두 생육상황도 다소 나빠졌다. 아이오와 남부, 미주리 북부에서는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중서부 저지대에서도 비가 내려 겨울밀 생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옥수수 지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적당한 비가 내려 여름작물 생육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한 폭풍우로 인해 토네이도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북부 평원 지대에서는 6월 21일, 중서부에서는 6월 22일, 북동부 지역에서는 6월 23일, 북부 Red River 계곡에서는 6월 27일에 토네이도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피해가 컸다. 중부와 남부 평원지대에서는 건조하고 마른 날씨가 지속되어 겨울밀 수확 등 농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난 한 주간 북서부 지역과 내륙산간의 서쪽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10°F 이상 높은 기온이 유지되었다.

□ 농업 현황 요약(6/22~6/28)

서부와 남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었다. 태평양 북서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12°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이와 반대로 옥수수 지대, 텍사스 동부, 북동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옥수수 지대 남부와 동부를 비롯한 북동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비가 내렸다. 미주리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6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 옥수수

6월 28일 기준 출사기(silking stage)가 끝난 지역의 비율은 약 4%로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4%p 뒤쳐진 상황이다. 쌀의 생육은 미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직전 5년 평균이 비해 늦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주보다 7%p 낮은 수치이고, 작년 동기와는 비슷한 상황이다. 동부 옥수수지대 일대, 특히 인디애나와 오하이오에서는 생육상황이 좋다는 응답이 각각 19%p, 10%p 감소했다.

■ 겨울밀

6월 28일 기준 전국 수확율은 38%를 기록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4%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8%p 낮은 수준이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수확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특히 일리노이, 캔사스, 미주리, 노스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등에서는 수확률이 25%에 이른다. 겨울밀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41%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주와 비슷한 상황이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11%p 높은 수치이다.

■ 면화

6월 28일까지 총 재배지의 98%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파종이 끝났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작년보다는 2%p 그리고 직전 5년 평균보다도 2%p 뒤쳐진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캔사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 파종이 지연되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생장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면화 송이가 관찰된 지역의 비율은 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약간 뒤쳐진 것이며,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3%p 낮은 상황이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56%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주보다 약간 증가한 수치이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3%p 높은 수준이다.

■ 쌀

6월 28일 기준 전국 출수율은 6% 수준이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8%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 7%p 앞선 상황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루이지애나의 출수율은 29%p 증가했고, 텍사스의 경우에도 24%p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응답자의 68%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주와 같은 상황이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간 감소한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6/14~6/20)

■ 유럽: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려 여름작물 생산 전망이 밝아졌지만, 서부 주요 곡창지대는 평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다시 찾아왔다. 프랑스 북동부와 유럽 동부의 저지대에 위치한 국가들에는 소나기가 내렸다(10-50mm). 이번 비는 해바라기와 옥수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겨울작물의 수확 작업은 다소 지연되었다. 전반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한 햇빛에 의한 피해가 없어 생산 전망은 밝은 편이다. 프랑스 남부와 서부 지역에서도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지난 주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로 작물들이 충분한 양의 수분을 공급받아 비가 그친 뒤 이어진 햇빛 강한 날씨에도 큰 피해가 없었다. 스페인 북부에서도 소나기가 내려(2-25mm) 해바라기와 옥수수의 생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달루시아 지방에는 낮 최고 기온이 35~37°C에 이르는 등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관계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탈리아 북부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렸고, 남부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 덕분에 수확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 구소련(서부): 서부와 남부 주요 곡창지대 전역에 걸쳐 강한 비가 내렸다. 몰도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밖에 러시아 서부 대부분의 지역 위로 상류층 공기가 정체되어 있어 강한 비가 내렸고(10-60mm), 이 비는 옥수수와 해바라기 등의 생육에 큰 도움이 되었다. 보다 남부지역에서도 강한 비가 내렸고(30-100mm), 이 때문에 겨울밀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었다. 불가 남부 지역에서는 강한 햇빛과 더운 날씨가 이어져(35-40°C) 여름작물을 비롯해 겨울밀과 봄밀 생산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 동아시아: 중국 북부 평원 대부분의 지역에 강한 비가 내렸고, 이 비 덕분에 옥수수, 면화 등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었다. 남부 Henan, Shandong, Anhui, Jiangsu 등에서는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이와 반대로 북부 지역에서는 50mm 전후의 비가 내렸다. Yangtze 계곡 일대에도 서부 지역에는 20mm 내외, Sichuan 북동부 일대에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내몽고와 Heilongjiang에서는 비가 내렸다(25-50mm). 남한 지역에서는 25-50mm 수준의 비가 내렸지만, 지난 한 달 이상 이어져 온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북한 지역에도 지난주 내린 비로 가뭄이 다소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가뭄이 다시 찾아왔다. 일본 전역에는 25-50mm의 비가 내렸다.

■ 호주: 서부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다(5-25mm).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역과 빅토리아 북부 전역에 걸쳐 소나기가 내렸지만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양이 매우 적었다. 뉴 사우스 웨일즈와 퀸즐랜드 남부 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비가 내렸지만 이번 비는 주요 곡창지대의 서부지역에 집중되었다. 남부와 동부에서는 평년보다 1~2°C 정도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10~20°C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 서부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동부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렸고, 중부지역에서도 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La Pampa, Cordoba, Buenos Aires 서부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중부 지역의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2°C 높았지만, 남서부 곡창지대에서는 밤 기온이 영하 5°C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보다 북쪽 지역의 Chaco, Formosa, Santa Fe 등에서는 지역에 따라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10-50mm). 북부 지역에서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고 파라과이와 국경을 마주한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까지 치솟았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6월 25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62%이며 지난해보다 9%p 높은 상황이다. 콩의 파종률은 49%이며 지난해에 비해 2%p 뒤쳐진 상황이다.

■ 브라질: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농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중부와 남부에서는 Rio Grande do Sul과 Santa Catarina 일부 지역에서만 비가 내렸다(10-25mm). Sao Paulo와 Minas Gerais에서는 평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2°C)의 기온이 유지되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져 사탕수수과 커피의 수확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덕분에 Parana 등에서의 동해 피해에 대한 우려도 사라졌다. 북동부 연안지역에서는 10-100mm의 비가 내렸다.